

청소년문제와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의 문화적 특수성* - 목포지역 사례연구 -

김 해 은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청소년문제의 문화비교적인 접근의 시도로, 도시문화, 농촌문화, 도서문화가 혼재해 있는 목포무안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반 심리적인 문제영역을 (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양식,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미래정향성, 가치관, 사회적 기술, 귀인양식, 자아상) 조사하여 성별, 연령, 문화배경에 (도시 일반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도서지방 출신 청소년, 선원가정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따른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성별, 문화배경에 따른 차이는 스트레스, 대처양식,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미래정향성, 가치관, 사회적 기술, 귀인성향, 자아상에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차이는 스트레스, 대처양식,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미래정향성, 가치관, 귀인성향, 자아상에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청소년 문제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각 집단에게 유용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발달은 환경의 요구와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기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위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발달을 구체적인 장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Eyferth, & Silbereisen, 1986) 맥락주의적인 페러다임에서 사회적 맥락, 역사적 현장,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달 심리학의 맥락주의적 연구 경향은 청소년의 행동을 구체적인 장(setting)에 이해하려는 노력을 자극하였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각 사회장면으로 (가정, 학교, 직장) 나누어 경험적으로 한 연구

(Argyle, 1986; Levitt, 1993; Gavazzi, 1993), 청소년의 여가 활동(Silbereisen et al.,1986), 사회 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치관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있다(Allerbeck & Hoag, 1986). 구체적인 장에서의 연구는 청소년의 행동을 예측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행동의 장은 일정한 공간(가정, 학교, 직장)일 수도 있고,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대인관계 장면일 수도 있으며 (부모 자녀 관계 Gavazzi, 1993; 가족간의 갈등구도 Lopez, 1991; 친구 관계 Kandel, 1986; Levitt, 1993; Silbereisen et al., 1986) 혹은

* 이 논문은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과제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문화적 특수성(사회적 변화, 지역적 특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 청소년 연구에도 문화비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정체성과 문화 (Hoare, 1991), 청소년의 친사회적 동기에 관한 문화비교 연구 (Silbereisen et al., 1986), 사회화와 가치관 유지에 관한 문화비교 연구들이 있다. (Trommsdorff, 1989) 이들 연구에 있어 문화비교의 수준은 동서양의 비교, 국가간의 비교, 하위문화권의 (subculture) 비교 등 다양하다. 특히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는 다양한 문화요소가 혼재해 있어 '하위문화권'간의 비교가 의미있는 일이다. 국제 도시인 서울로부터 중·소 도시, 농·어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이 다양하여, 이들 각 문화권의 청소년 문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목포, 무안지역은 도시 문화, 농촌 문화, 도서 문화가 혼재해 있는 지역이다. 중심 목포지역은 중규모의 항구도시로서 선원가정이 많고, 도서지방에서 목포지역 고등학교로 '유학'을 오는 학생도 많다. 그리고 주변 무안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문제를 제반 심리변인으로 파악하고, 목포·무안지역의 청소년들을 여러 하위 문화권으로 분류하여 이들 각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 문제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게 유용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성장과 심리적인 변화를 보이며, 사회적 기대, 개인적 소망, 생물학적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위기는 다양한 내적, 외적 상황들에서 나타나는 발달 과업 수행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부담이 되는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불분명한 문제들이 청소년들에게 스

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심리변인은 스트레스 변인외에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스트레스 대처 양식, 사회적 기술, 미래정향성, 가치관, 귀인양식, 자아상이다.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의 전이 과정에서 부모 자녀간의 갈등이 증가한다. 청소년의 부적응은 부정적인 의사소통, 강압적인 상호관계, 비현실적기대, 무시 등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Acker, & O'Leary, 1988; Pffiffer et al., 1985; Patterson & Stouthammer-Loeber, 1984) Gavazi (1993)는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를 독립성과 친밀성의 조화로 설명하여 독립성이 제한되어 있을 때 자녀들은 구속, 통제를 지각하며, 친밀성은 부모의 지지, 정보의 제공, 관심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스트레스 대처과정은 개개인이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여 자신의 행위양식을 활용하여서 발달 과업을 완수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관한 연구 동향이 '위험한 상황'에서의 대처로부터 개인이 어떻게 일상의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대처해가는가로 바뀌었다. (Seiffge-Krenke et al., 1984; Dreher & Dreher, 1985; Seiffge-Krenke, 1989) 스트레스의 대처 방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요인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Folkman et al., 1988; Chan, 1984)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대처는 사회적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Parker & Asher, 1987)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은 나이에 따라 변화한다.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좀 더 독립적이 되고, 친구의 성격이나 신뢰, 자신들만의 독특함을 강조하게 된다.

Trommsdorff는 (1983, 1986) 미래 정향성을 인지적, 동기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하는 변인으로 파악하였다. 동기적, 정서적 측면은 미래의 소망, 목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희망 등을 포함하고

인지적 측면은 미래 사건들을 시간적, 인과적인 연속과정으로 파악하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인지적 도식은 확장, 분화되고, 더욱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발달되어간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과제 수행을 방해하고 미래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의 예측은 미래를 계획하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형식 조작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미래 정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는 정서적 안정성, 귀인양식, 강화 지연에 대한 내성, 문제해결능력 등이 있다. 미래 정향성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와도 관계를 갖고 있다.

귀인 양식은 관찰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법칙이라 정의 될 수 있다. 개개인은 환경속의 사건들을 일관적, 안정적으로 지각하고 설명한다. Abramson et al. (1978)은 귀인 양식을 내적/외적; 지속적/일시적; 전체적/선별적 차원으로 구별하였고, 귀인 성향과 학습된 무기력감과 연결하여, 부정적 결과에 대해 내적, 지속적, 전체적 귀인을 하면 무기력감이 오래 지속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아개념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탐색과정의 결과로 형성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발달과업을 어떻게 완성해 내는가는 자아개념 형성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Seiffge-Krenke (1990)는 대처 양식과 자아개념 유형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즉 능동적 대처를 많이 하는 청소년은 높은 자기 효능감을 보이고 회피, 방어적 대처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정적 자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목포, 무안 지역 청소년들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각 하위문화권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성별, 연령, 그리고 목포,

무안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들 및 해당 연령의 청소년들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5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도시 일반 청소년, 농촌, 도서지방 출신, 선원가정,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본 연구에서 도시 일반 청소년들이란 목포시에 거주하며 부모님과 동거하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또한 거주 상황에 따라서 5개 집단이 (부모와 동거, 자취, 하숙, 기숙사, 친척집) 구성되었다. 한편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가 중학생들에게는 많지 않아서 거주상황에 따른 집단간 비교는 고등학생들에게만 실시하였다. 집단별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1. 성별 구성

남	여
45	36

표2. 연령별 구성

중2	중3	고1	고2	고3
207	181	316	128	

표3. 주거지역별 구성

목포시내	농촌지역
623	199

표4. 거주상황별 구성

부모동거	자취	하숙	기숙사	친척집
208	75	28	103	30

표5. 문화배경별 구성

도시일반	도시출신	농촌	선원가정	보호관찰
122	150	91	55	48

측정도구

가. 스트레스 : Dittman-Kohli(1986)와 Seiffge-Krenke (1989)가 제시한 것과 같이 스트레스 변인을 생태학적인 측면과 심리행동적인 측면의 두 개의 축으로 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의미있는 장으로 가정, 학교, 여가활동 장소를 구별하고, 심리·행동적 차원은 개인 내적, 외적, 개인간의 문제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이 흔히 경험하는 문제 상황들을 정리하고, 여러 집단의 청소년들과 7차례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총 47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제작하였다. 요인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스트레스 대처양식 : Folkman et al.(1988)

표6.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변인	문항수	α -신뢰도지수	Eigen값	주요 내용
a. 학교 문제	9	.68	9.36	학교 폭력, 교우 관계, 교사의 차별대우
b. 장래, 직업 문제	5	.75	2.96	모호한 장래, 진로, 적성 고민
c. 가족관계	5	.73	1.84	대화 부재, 가족관계 갈등, 부모의 차별대우
d. 학업	5	.71	1.80	공부 방법, 주의 집중의 어려움, 성적
e. 가정환경	4	.60	1.62	집안일, 가정 형편, 가족과 떨어져 삶
f. 이성 문제	4	.67	1.39	성문제, 이성친구와의 교제의 어려움
g. 친구 문제	3	.52	1.38	친구 교제의 어려움, 진정한 친구 없음
h. 용돈 문제	3	.61	1.28	용돈 부족, 물건 구매 욕구
i. 성격(통제력부족)	3	.58	1.21	자기 통제에 어려움, 억제하기 힘들
j. 외모	2	.51	1.04	신체조건, 외모
k. 부모 간섭기대	2	.58	1.0	부모의 지나친 간섭, 기대
l. 소극적 성격	2	.60	1.0	자기표현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

의 Ways of Coping Questionnaire의 8가지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Endler & Parker (1994)의 3개 전략을 (문제 중심 대응, 정서적 대응, 회피) 중심으로 문항을 만들고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여 총 22개 문항을 4점 Likert척도로 제작하였다.

표7. 스트레스 대처 양식 척도

대처양식	문항수	α -신뢰도지수	Eigen값	주요 내용
a. 적극적 대처	4	.50	2.51	부담감, 해결 방안 모색
b. 도파적 대처	4	.60	2.35	도파, 혼자 있기, 울거나 화내기
c. 무시	3	.48	1.64	무시, 생각 안하기
d. 사회적 지원 요청	4	.50	1.32	도움 요청, 대화, 위로 받기
e. 발산적 대처	2	.50	1.18	술, 노래방 가기
f. 소극적 기분전환	2	.40	1.10	음악 듣기, 다른 일 하기
g. 수용적 대처	3	.43	1.03	문제 수용, 공상

또한, 스트레스상황별로 사용되는 대처양식을 구별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장(setting)에 따라 (가정, 친구와의 관계, 이성관계, 개인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 사용되는 스트레스 전략을 앞에서 제시된 22개 문항 중 2

개 이상 선택하도록 하여 그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다. 미래정향성 : 미래정향성을 인지적, 정의적, 동기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총 12문항을 개발하였다. 인지적 측면은 미래계획의 범위 (시간적 조망) 1문항과, 미래 계획 및 실천 수단의 구체성, 현실성 6문항으로 (α -신뢰도 지수: .48) 제시하였다. 동기, 정의적 측면은 미래에 대한 감정을 조사하고 (두려움, 희망, 답답함 기타), 미래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있고 또 낙관적으로 생각하는가를 조사하는 4문항으로 (α -신뢰도 지수:.75) 제시하였다.

라. 가치관 : Ulrich & Ulrich de Muynch (1976)의 가치관 척도를 기본으로,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여 심층면접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여 총 24항목을 제시하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 3점, 2점, 1점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8. 가치관 척도

가치관 변인	문항수	α -신뢰도지수	Eigen값	주요 내용
a. 힘/권력	4	.74	4.10	물질적 성공, 높은 지위, 권력, 지도력
b. 성실성	4	.66	2.95	노력, 근면, 원칙에 충실, 인내
c. 인간관계	4	.62	1.94	다정함, 만남, 가정, 우정
d. 재미	4	.61	1.27	모험, 취미생활, 다양한 경험, 재미
e. 안락함	4	.64	1.14	상상의 세계, 쉬기, 혼자만의 시간, 편안함
f. 인정	4	.58	1.07	명예, 인정, 존경받기, 칭찬듣기

마. 사회적 기술 : Inderbitzen & Foster(1992)의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를 수정, 보완하여 16문항의 4점 척도를 개발하였다.

바. 부모양육태도의 지각 : Robin, Koepke & Moye (1990)의 Parent-Adolescent-Relationship Questionnaire와 Arnold, O'Leary, Wolff &

표9. 사회적 기술 척도

사회적 기술	문항수	α -신뢰도지수	Eigen값	주요 내용
a. 공격적 태도	5	.56	2.30	불쾌한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 폭력의 사용
b. 회피적 태도	5	.52	2.06	덜어 두기, 표현하지 않기
c. 수용, 협동적	3	.41	1.42	의사 존중, 동조, 칭찬하기
d. 자기 주장적	3	.44	1.13	자신의 뜻 관철, 요청하기
e. 무시	2	.42	1.08	무시, 상관하지 않기

Acker (1993)의 The parenting scale을 수정, 보완하여 총 25문항 5점 Likert척도를 개발하였다.

표10.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수	α -신뢰도지수	Eigen값	주요 내용
a. 강압적 (무중, 간섭)	10	.81	7.28	지나치게 무중, 체벌, 엄격, 간섭
b. 무시, 불신	9	.82	2.04	무시, 불신, 인정하지 않음, 지나친 통제
c. 수용 (위로, 격려)	3	.66	1.44	이해, 위로, 격려
d. 무관심	3	.50	1.22	무관심, 신경 쓰지 않음

사. **귀인양식** : 귀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Peterson (1982) 등이 개발한 ASQ를 (Attribution style questionnaire)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가상적인 상황에서 그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내적/외적, 지속적/일시적 귀인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내적/외적 귀인 척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과 같은 내적인 면에서부터 주변 상황과 같은 외적인 면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지속적/일시적 척도는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유사하게 귀인하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두 4개의 가상적인 상황이 주어졌는데 크게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누어졌고 다시 각각 대인 관계 상황과 (친구의 친절한 행동, 친구의 무시) 능력에 관한 상황으로 (부자가 됨, 취직이나 입시에서 실패) 나누어 제시하였다. (α -신뢰도 지수: .44 - .69)

아. **자아상** : Beck외의 (1990) Self-Concept

Test를 심층면접을 통해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총 38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표11. 자아상 척도

자아상	문항수	α -신뢰도지수	Eigen값	주요 내용
a. 자신감	9	.78	5.86	자신감, 만족, 긍정적, 문제 해결 능력
b. 미래의 자아상	6	.73	3.31	노력하면 목표 달성, 미래는 밝기 나름
c. 성격 (충동, 고립)	7	.65	2.24	충동적, 자기 조절 능력 부족, 고립
d. 도덕적인 자아상	3	.58	1.50	가족의 기대에 부응, 신임
e. 사회적 자아상	4	.62	1.31	가족, 친구에게 중요한 사람, 가족 이해
f. 의욕, 동기형성	6	.48	1.28	의욕적, 하고 싶은 일이 많음

결 과

1.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스트레스** :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학업, 장래·적성, 외모, 소극적 성격, 부모님의 간섭·기대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학교문제, 장래·적성, 가족관계,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 용돈 문제, 통제력 부족, 이성관계에 의

표12.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스트레스 변인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a. 학교문제	2.60 (.87)	2.70 (.91)	2.42 (.75)	16.52**
b. 장래·적성문제	3.50 (.89)	3.69 (.86)	3.40 (.90)	10.85**
c. 가족관계	2.47 (.95)	2.53 (.94)	2.35 (.95)	7.43**
d. 학업	3.59 (.84)	3.58 (.85)	3.61 (.81)	.02
e. 가정환경	2.33 (.89)	2.32 (.90)	2.36 (.87)	.05
f. 이성문제	2.21 (.94)	2.33 (.95)	2.00 (.89)	16.60**
g. 친구문제	2.92 (.94)	2.82 (.92)	3.10 (.96)	11.35**
h. 용돈문제	2.98 (.94)	3.04 (.97)	2.88 (.88)	3.89*
i. 성격(통제력부족)	2.89 (.98)	2.95(1.01)	2.75 (.92)	4.57*
j. 외모	3.24(1.13)	3.11(1.15)	3.19(1.09)	.32
k. 부모 간섭·기대	3.22(1.00)	3.28(1.02)	3.11 (.97)	5.88*
l. 소극적 성격	3.24(1.08)	3.21(1.09)	3.28(1.07)	.01

** p<.01 * p<.05

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친구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스트레스 대처 양식 : 전체적으로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부딪쳐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른 일거리를 찾아 몰두하여 기분 전환을 시도하는 비교적 건전한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들이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수용적 대처, 사회적 지원 요청, 소극적인 기분전환의 방법을 사용하고 회피적인 방법도 남학생들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성별에 따른 대처양식의 차이

대처 양식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a. 적극적인 대처	2.37 (.56)	2.39 (.57)	2.34 (.54)	4.61*
b. 회피적인 대처	1.79 (.60)	1.75 (.60)	1.86 (.60)	9.11**
c. 무시하는 태도	1.72 (.56)	1.76 (.57)	1.66 (.54)	2.71
d. 사회적 지원 요청	2.12 (.60)	2.05 (.60)	2.24 (.60)	14.16**
e. 발산적 대응	1.51 (.66)	1.54 (.69)	1.46 (.59)	3.07
f. 소극적 기분전환	2.16 (.77)	2.10 (.78)	2.27 (.72)	6.29*
g. 수용적 대처	2.38 (.61)	2.37 (.62)	2.41 (.59)	.32

** p<.01 * p<.05

다. 상황별 스트레스대처양식 비교 :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대처양식에 차이가 있었다. ($\chi^2=570.98$ p<.01)

가정문제에는 적극적인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한편 회피적인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chi^2=45.54$, p<.01) 남학생들이 적극적인 대처양식을, 여학생들이 회피적인 대처 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표14. 상황별 스트레스 대처양식 사용 빈도수

	가정문제	친구관계	이성관계	개인적문제	경제적문제	성적
a. 적극적인 대처	373	365	181	381	429	412
b. 회피적인 대처	257	69	69	130	19	90
c. 무시	99	113	161	109	130	115
d. 사회적 지원 요청	143	330	196	135	241	161
e. 발산적 대응	52	68	62	72	8	51
f. 소극적 기분전환	193	59	108	192	24	73
g. 수용적 대처	161	113	166	233	156	169

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문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성 문제에서는 여학생들이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적극적인 방법을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7.5$, p<.01)

라.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자신이 부모로 부디 이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지각의 차이는 부모의 무시, 불신하는 태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

표15.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지각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a. 강압적 태도 (부중, 간섭)	2.04 (.66)	2.09 (.66)	1.98 (.65)	3.10
b. 무시, 불신하는 태도	2.35 (.66)	2.41 (.67)	2.27 (.65)	5.28*
c. 수용적 태도 (위로, 격려)	3.19 (.89)	3.22 (.89)	3.16 (.89)	1.41
d. 무관심	1.88 (.68)	1.89 (.67)	1.88 (.68)	.24

* p<.05

마. 미래 정향성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좀 더 멀리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신감이나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교

적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성별에 따른 미래 정향성의 차이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미래계획의 범위	3.28 (.97)	3.16(1.05)	3.40 (.79)	14.65**
자신감	1.38 (.48)	1.43 (.49)	1.29 (.45)	11.68**
현실성 저각	1.48 (.50)	1.51 (.50)	1.42 (.49)	5.15*

* p<.01 * p<.05

미래에 대한 감정을 묻는 질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답답함을 더욱 많이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chi^2=8.19, p<.05$)

바. 가치관 : 전체적으로 좋은 인간관계, 성실성, 재미, 경험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성실성, 좋은 인간관계, 안락함에서만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에 비해서 여학생들이 노력, 근면함과 같은 성실성과 좋은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락함도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성별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가치 영역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a. 힘, 권력	1.98 (.49)	1.99 (.46)	1.97 (.46)	.32
b.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2.11 (.49)	2.09 (.49)	2.13 (.49)	.67
c. 성실성	2.60 (.40)	2.55 (.42)	2.67 (.37)	16.29**
d. 좋은 인간관계	2.63 (.35)	2.61 (.34)	2.68 (.33)	6.20*
e. 재미, 경험	2.42 (.43)	2.40 (.44)	2.45 (.41)	1.85
f. 안락함	2.16 (.47)	2.10 (.47)	2.24 (.46)	11.88**

** p<.01 * p<.05

사. 사회적 기술 :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태도 혹은 수용, 협동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들이 공격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는 반

면에 여학생들은 수용,협동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하는 태도는 남학생들보다 더욱 약하게 보이고 있다.

표18.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사회적 기술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a. 공격적 태도	2.87 (.79)	3.00 (.82)	2.72 (.72)	14.46**
b. 회피적 태도	2.27 (.50)	2.32 (.47)	2.22 (.54)	3.21
c. 수용, 협동적 태도	2.71 (.52)	2.67 (.52)	2.76 (.52)	4.80*
d. 주장적 태도	2.10 (.56)	2.13 (.57)	2.07 (.55)	.83
e. 무시하는 태도	1.56 (.62)	1.71 (.67)	1.39 (.51)	36.39**

** p<.01 * p<.05

아. 귀인 성향 :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자신의 능력이나 성품에서 그 원인을 찾는 내적 귀인 성향과 앞으로도 비슷하게 귀인을 할 것이라는 안정적 귀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긍정적인 일에서의 내적 귀인 성향이 여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19. 성별에 따른 귀인 성향의 차이

귀인 양식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내적 귀인 (긍정적 사건)	3.41 (.77)	3.32 (.84)	3.56 (.63)	13.04**
안정적 귀인 (긍정적 사건)	3.31 (.84)	3.33 (.88)	3.28 (.78)	.17
내적귀인 (부정적 사건)	2.90 (.74)	2.91 (.77)	2.87 (.69)	.24
안정적 귀인 (부정적 사건)	3.03 (.77)	3.07 (.79)	2.97 (.72)	2.19

** p<.01

자. 자아상 : 전체적으로 미래의 자아상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욕, 동기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전반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고, 여학생들에 비해 더 신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성별에 따른 자아상의 차이

자아상	전체평균(SD)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F값
a. 자신감	2.40 (.53)	2.45 (.52)	2.34 (.53)	3.92*
b. 미래의 자아상	2.75 (.56)	2.75 (.57)	2.76 (.55)	.11
c. 성격 (충동, 교란)	2.25 (.55)	2.24 (.58)	2.24 (.50)	.26
d. 도덕적인 자아상	2.34 (.57)	2.41 (.60)	2.36 (.53)	9.33**
e. 사회적 자아상	2.54 (.60)	2.57 (.60)	2.53 (.61)	.39
f. 의욕, 동기형성	2.87 (.54)	2.87 (.55)	2.88 (.48)	.01

** p<.01 * p<.05

2.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중학교1,2학년/ 중3/ 고1,2/ 고3) 각 심리 영역별로 집단간의 차이를 MANOVA, one-way ANOVA, Tukey test를 통해 비교 하였다.

가. 스트레스 : 표21에서와 같이 5가지 스트레스 영역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1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스트레스 변인	중1,2평균(SD)	중3평균(SD)	고1,2평균(SD)	고3평균(SD)	F값
a. 학교 문제	2.89 (.93)	2.73 (.92)	2.45 (.80)	2.44 (.77)	7.90**
b. 장래, 적성 문제	3.20 (.92)	3.53 (.78)	3.66 (.83)	3.55 (.98)	8.89**
c. 가족관계	2.59(1.02)	2.54 (.95)	2.44 (.96)	2.33 (.82)	2.82*
d. 학업	3.51 (.89)	3.70 (.71)	3.58 (.81)	3.61 (.90)	2.19
e. 가정환경	2.33 (.93)	2.47 (.95)	2.37 (.85)	2.18 (.94)	3.95*
f. 이성 문제	2.32 (.93)	2.28 (.99)	2.13 (.93)	2.19 (.94)	1.45
g. 친구 문제	2.83 (.91)	2.95(1.01)	2.96 (.91)	2.92 (.98)	1.35
h. 용돈 문제	2.91(1.01)	3.10 (.86)	3.00 (.89)	2.94(1.00)	1.57
i. 성격 (동체력부족)	2.93(1.00)	2.96 (.95)	2.80 (.94)	2.93 (.95)	1.93
j. 위도	3.02(1.22)	3.24(1.07)	3.17(1.11)	3.15(1.11)	.17
k. 부모간섭, 기대	3.43(1.02)	3.30 (.98)	3.14 (.97)	3.05(1.02)	4.17**
l. 소극적 성격	3.10(1.11)	3.40 (.91)	3.24(1.09)	3.25(1.14)	2.07

** p<.01 * p<.05

이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문제 (학교 폭력, 교우/교사와

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적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중3 이상의 학생들이 중1,2학년 학생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족관계, 부모님의 간섭이나 기대면에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 스트레스 대처 :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처, 수용적 대처, 지원 요청, 소극적 기분전환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회피적인 대처양식을 보였고, 고1,2 학년 학생들이 중1,2 학년 학생들에 비해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는 발산적인 대처방법이나 소극적인 기분 전환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고1,2 남학생들이 발산적인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F=6.03, p<.01) 한편 연령과 주거양식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부모와 별거하는 저학년 학생들이 회피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4, p<.05) 수용적인 태도는 중1,2 학년 학생들보다는 고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보였다.

표22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대처양식의 차이

대처 양식	중1,2평균(SD)	중3평균(SD)	고1,2평균(SD)	고3평균(SD)	F값
a. 적극적인 대처	2.36 (.55)	2.40 (.58)	2.35 (.55)	2.38 (.55)	.65
b. 회피적인 대처	1.89 (.65)	1.85 (.59)	1.75 (.59)	1.62 (.51)	5.63**
c. 무시	1.75 (.55)	1.69 (.59)	1.72 (.55)	1.71 (.57)	.54
d. 사회적 지원 요청	2.05 (.60)	2.17 (.58)	2.10 (.63)	2.19 (.56)	1.86
e. 발산적 대응	1.34 (.59)	1.50 (.60)	1.64 (.71)	1.51 (.65)	6.40**
f. 소극적 기분전환	2.04 (.75)	2.34 (.82)	2.18 (.74)	2.05 (.72)	3.74*
g. 수용적인 대처	2.23 (.61)	2.40 (.60)	2.43 (.58)	2.46 (.66)	2.99*

** p<.01 * p<.05

다.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 표23에서보는 바와 같이 고3 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보다 부모의 간섭이나 꾸중, 그리고 무시나 불신을 덜 받는

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연령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지각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중1,2평균(SD)	중3평균(SD)	고1,2평균(SD)	고3평균(SD)	F값
a. 강압적 태도 (무중, 간섭)	2.19 (.72)	2.11 (.60)	2.01 (.67)	1.86 (.59)	4.88**
b. 무시, 불신하는 태도	2.50 (.66)	2.36 (.62)	2.35 (.68)	2.17 (.65)	4.08**
c. 수용적 태도 (위로, 격려)	3.22 (.97)	3.13 (.90)	3.11 (.85)	3.37 (.85)	1.39
d. 무관심	1.88 (.70)	1.80 (.63)	1.89 (.65)	1.97 (.73)	2.18

** p<.01

라. 미래 정향성 :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대해 좀더 멀리 생각하는 반면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나 현실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연령에 따른 미래 정향성의 차이

	중1,2평균(SD)	중3평균(SD)	고1,2평균(SD)	고3평균(SD)	F값
미래계획의 범위	2.95(1.06)	3.20 (.91)	3.17(1.02)	3.66 (.72)	13.90**
자신감	1.53 (.50)	1.38 (.48)	1.35 (.50)	1.23 (.42)	13.29**
현실성 지각	1.52 (.50)	1.40 (.49)	1.42 (.48)	1.35 (.48)	12.02**

** p<.01

마. 가치관 :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는 모두 4개 영역에서 나타났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힘이나 권력,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표25.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가치 영역	중1,2평균(SD)	중3평균(SD)	고1,2평균(SD)	고3평균(SD)	F값
a. 힘, 권력	1.90 (.50)	1.89 (.51)	2.00 (.48)	2.09 (.50)	4.63**
b.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2.13 (.47)	2.05 (.51)	2.08 (.48)	2.21 (.49)	2.67**
c. 성실성	2.52 (.42)	2.59 (.39)	2.62 (.39)	2.62 (.40)	.53
d. 좋은 인간관계	2.58 (.33)	2.61 (.35)	2.65 (.34)	2.67 (.34)	1.96
e. 재미, 경험	2.29 (.46)	2.38 (.43)	2.46 (.41)	2.47 (.41)	5.16**
f. 인력함	1.99 (.47)	2.14 (.47)	2.19 (.45)	2.23 (.48)	6.20**

** p<.01

보다 재미나 경험, 그리고 인력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귀인 성향 : 표26에서와 같이 고3 학생들이 긍정적인 일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이나 성품으로 돌리는 내적 귀인을 많이 하고, 또한 안정적 귀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표26. 연령에 따른 귀인 성향의 차이

귀인 성향	중1,2평균(SD)	중3평균(SD)	고1,2평균(SD)	고3평균(SD)	F값
내적 귀인 (긍정적 사건)	3.42 (.83)	3.50 (.71)	3.37 (.78)	3.63 (.73)	3.79*
안정적 귀인 (긍정적 사건)	3.08 (.93)	3.12 (.85)	3.29 (.83)	3.58 (.73)	11.15**
내적 귀인 (부정적 사건)	2.85 (.83)	3.00 (.79)	2.92 (.71)	2.86 (.71)	1.46
안정적 귀인 (부정적 사건)	2.97 (.81)	2.96 (.79)	2.94 (.72)	3.33 (.74)	8.89

* p<.01, ** p<.05

사. 자아상 : 표27에서와 같이 고3 학년 학생들이 중1,2 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을 능력이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연령에 따른 자아상의 차이

자아상	중1,2평균(SD)	중3평균(SD)	고1,2평균(SD)	고3평균(SD)	F값
a. 자신감	2.41 (.55)	2.34 (.48)	2.38 (.50)	2.48 (.61)	1.98
b. 미래의 자아상	1.64 (.62)	2.73 (.51)	2.76 (.54)	2.87 (.58)	3.90**
c. 성격 (충동, 교활)	2.20 (.54)	2.17 (.46)	2.23 (.53)	2.33 (.62)	1.95
d. 도덕적인 자아상	2.41 (.62)	2.36 (.53)	2.28 (.54)	2.36 (.61)	.75
e. 사회적 자아상	2.60 (.62)	2.48 (.57)	2.53 (.60)	2.58 (.61)	.88
f. 의욕, 동기형성	2.83 (.57)	2.89 (.51)	2.92 (.47)	2.93 (.54)	.52

** p<.01

3. 문화적 배경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문화적 하위 집단으로서 본 연구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5개 집단으로서 도시 일반 청소년집단, 농촌지역 청소년 집단, 도서 지방 출신 집단, 선원 가정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집단이다.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긴 설문지

에는 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들에게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로, 설문지를 관심있는 영역으로 줄여서 제시하였다. 도서지방 출신 중학생들이 없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도 해당 연령 청소년들이 없어서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도시일반, 농촌, 선원가정 청소년의 3집단간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각 심리 영역별로 집단간의 차이를 MANOVA, one-way ANOVA, Tukey test를 통해 비교 하였다.

가. 스트레스 : 학교 문제나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농촌 청소년들과 선원가정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받고 (이는 중학생들에게도 공통된 현상이다. $F=3.35, p<.05$) 장래및 적성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섭 때문에는 농촌 청소년들이, 소극적 성격 때문에는 도서출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다. 가정환경, 친구,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도서 지방에서 온 학생들과 선원가정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문화적 배경과 성별, 주거상황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도서지방 출신 자취

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특히 친구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13, p<.05$) 또한 연령, 주거상황과의 상호작용 결과 고3의 경우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간섭이나 기대에 의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01, p<.05$)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친구문제나 외모 그리고 자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를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배경과 연령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저학년의 경우 집단간 차이를 별로 보이지 않는 반면에 고학년들은 농촌 청소년들이 가정환경 ($F=2.61, P<.05$), 용돈 ($F=2.69, p<.05$), 외모 ($F=2.73, p<.05$)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 스트레스 대처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그리고 발산적인 대응, 소극적 기분 전환이나 수용적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문화배경과 연령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선원가정의 청소년들이 고학년일수록 발산적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3.96, p<.01$) 도서지방 출신으로 기숙사에 기거하는 고학년 여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해버리는 경향을 더 많이 보이고, ($F=4.07, p<.01$) 기숙사나 친척집

표28 문화배경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스트레스 변인	일반(SD)	농촌(SD)	도서출신(SD)	선원가정(SD)	보호관찰(SD)	F값
a. 학교문제	2.27 (.69)	2.59 (.82)	2.46 (.82)	2.68 (.90)	-	3.79*
b. 장래,적성문제	3.63 (.86)	3.63 (.89)	3.74 (.76)	3.36 (.91)	2.68(1.27)	13.50**
c. 가족관계	2.28 (.88)	2.71 (.98)	2.31 (.97)	2.62(1.08)	2.15 (.90)	3.61*
d. 학업	3.62 (.78)	3.47 (.95)	3.64 (.81)	3.50 (.87)	-	.56
e. 가정환경	2.00 (.76)	2.26 (.89)	2.75 (.86)	2.50 (.93)	2.16(1.22)	9.90**
f. 이성문제	1.89 (.89)	2.15 (.94)	2.10 (.89)	2.24(1.06)	1.85 (.92)	2.40*
g. 친구문제	2.87 (.94)	2.90 (.92)	3.17 (.98)	2.95 (.88)	2.14 (.98)	12.01**
h. 용돈문제	2.86 (.95)	3.21 (.93)	2.96 (.80)	3.11 (.86)	-	2.62
i. 성격(동계력부족)	2.73 (.92)	2.79(1.03)	2.91 (.92)	3.06 (.97)	2.79(1.12)	.84
j. 외모	3.03(1.12)	3.43(1.11)	3.23(1.09)	3.11 (.92)	2.47(1.18)	6.36**
k. 부모간섭,가대	3.17 (.87)	3.40(1.03)	3.05 (.97)	3.03(1.16)	-	3.65**
l. 소극적 성격	3.03(1.13)	3.21(1.16)	3.45 (.98)	3.10(1.01)	2.41(1.08)	10.05**

* $p<.01$ * $p<.05$

표29 문화배경에 따른 대처양식 차이

대처 양식	일반(SD)	농촌(SD)	도서출신(SD)	선원가정(SD)	보호관찰(SD)	F값
a. 적극적인 대처	2.27 (.58)	2.39 (.61)	2.40 (.51)	2.39 (.51)	1.65 (.87)	12.92**
b. 회피적인 대처	1.79 (.59)	1.88 (.69)	1.72 (.55)	1.92 (.66)	3.30 (.81)	60.54**
c. 무시하는 태도	1.73 (.54)	1.67 (.55)	1.63 (.54)	1.62 (.58)	2.84 (.89)	42.05**
d. 사회적 지원 요청	2.10 (.55)	2.09 (.63)	2.32 (.64)	1.92 (.66)	3.01 (.86)	21.06**
e. 발산적 대응	1.61 (.73)	1.88 (.81)	1.51 (.57)	1.71 (.76)	2.72 (.92)	22.29**
f. 소극적 기분전환	2.20 (.716)	2.18 (.73)	2.21 (.74)	1.97 (.69)	3.03(1.21)	14.15**
g. 수용적 대처	2.40 (.61)	2.37 (.59)	2.44 (.59)	2.31 (.54)	2.88(1.25)	5.05**

** $p<.01$

에 사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좀 더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5.19, p<.01) 한편 자취를 하는 여학생들은 회피적인 대응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F=2.82, p<.05)

다. 부모 양육태도의 지각 : 4개 집단 (일반 도시 청소년집단, 농촌지역 청소년 집단, 도서 지방 출신 집단, 선원 가정 청소년) 간의 비교를 하였다. 표30에서보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 청소년들과 선원가정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꾸중과 간섭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연령과 문화배경 상호작용 결과 이러한 경향은 농촌지역 중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F=3.12, p<.05) 또한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부모가 자신을 무시, 불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도서 지방출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보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위로와 격려를 해준다고 여긴다. 이러한 경향은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F=2.60, p<.05) 한편 자취를 하거나 친척집에 사는 남학생들은 오히려 부모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였다. (F=4.69, p<.01)

표30 문화배경에 따른 양육태도 지각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일반(SD)	농촌(SD)	도서출신(SD)	선원가정(SD)	F값
a. 강압적 태도 (꾸중, 간섭)	1.94 (.64)	2.24 (.81)	1.90 (.61)	2.20 (.83)	4.60**
b. 무시, 불신하는 태도	2.42 (.65)	2.70 (.77)	2.22 (.68)	2.55 (.77)	7.05**
c. 수용적 태도 (위로, 격려)	2.98 (.88)	2.92 (.97)	3.29 (.81)	2.90(1.03)	2.85*
d. 무관심	1.88 (.67)	1.86 (.86)	1.88 (.67)	2.02 (.89)	.37

** p<.01 * p<.05

라. 미래 정향성 : 도시 일반 청소년들과 도서 지방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더 멀리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미래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배경과 연령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특히 농촌지역 고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다고 하였다. (F=2.98, p<.05)

표31 문화배경에 따른 미래정향성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일반(SD)	농촌(SD)	도서출신(SD)	선원가정(SD)	F값
미래계획의 범위	3.21(1.03)	2.73(1.07)	3.45 (.83)	2.88(1.10)	9.25**
자신감	2.61(1.19)	1.63 (1.81)	2.91 (.99)	1.74 (.44)	23.31**
현실성 지각	1.61 (.86)	1.21 (.48)	1.83 (.82)	1.76 (.43)	9.24**

** p<.01

마. 가치관 : 표32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힘,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농촌, 도서지방 출신, 선원가정 청소년들이 성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배경과 성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선원가정의 경우 다른 집단과는 달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타인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F=3.74, p<.05)

표32 문화배경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

가치 영역	일반(SD)	농촌(SD)	도서출신(SD)	선원가정(SD)	보호관찰(SD)	F값
a. 힘, 권력	2.03 (.48)	1.90 (.53)	1.94 (.47)	2.02 (.46)	2.17 (.48)	2.61*
b. 타인의 인정	2.35 (.39)	2.32 (.39)	2.29 (.40)	2.23 (.39)	2.43 (.42)	1.63
c. 성실성	2.55 (.47)	2.63 (.30)	2.69 (.32)	2.68 (.33)	2.54 (.48)	2.85*
d. 좋은 인간관계	2.66 (.36)	2.60 (.36)	2.67 (.33)	2.72 (.38)	2.75 (.32)	1.65
e. 재미, 경험	2.44 (.42)	2.47 (.44)	2.44 (.39)	2.38 (.45)	2.53 (.45)	.81
f. 안락함	2.22 (.47)	2.18 (.46)	2.17 (.46)	2.02 (.39)	2.18 (.44)	.91

* p<.05

바. 사회적 기술: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원 가정 청소년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공격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특히 남자 고등 학생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F=3.89, p<.05) 연령과 문화배경의 상호작용 분석 결과 중학생들의 경우 도시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태도를 더 많이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7.40, p<.01) 한편 도서지방 출신중 하숙을 하는 남학생들이 무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2.71, p<.05$)

표33. 문화배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일반(SD)	농촌(SD)	도시출신(SD)	선원가정(SD)	F값
a. 공격적 태도	1.69 (.50)	1.66 (.49)	1.63 (.44)	2.94 (.69)	63.00**
b. 회피적 태도	2.20 (.57)	2.15 (.58)	2.23 (.48)	2.26 (.36)	.49
c. 수용,협동적 태도	2.73 (.56)	2.68 (.54)	2.77 (.52)	2.71 (.50)	.57
d. 주장적 태도	1.99 (.57)	2.01 (.55)	2.11 (.51)	2.18 (.55)	1.43
e. 무시하는 태도	1.38 (.54)	1.54 (.72)	1.45 (.51)	1.60 (.63)	1.82

** $p<.01$

사. 귀인 양식 : 선원가정 청소년들이 내적 귀인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경향이 안정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원가정 중학생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F=3.26, p<.05$) 한편 문화배경과 성의 상호작용 분석결과 도시지방 출신 청소년들의 경우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일에 내적 귀인 성향을 더 많이 보였다. ($F=2.69, p<.05$)

표34 문화배경에 따른 귀인 성향의 차이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	일반(SD)	농촌(SD)	도시출신(SD)	선원가정(SD)	F값
내적 귀인 (긍정적 사건)	3.00 (.75)	3.19 (.77)	3.02 (.73)	3.62 (.78)	6.58**
안정적 귀인 (긍정적 사건)	3.21 (.75)	3.30 (.75)	3.21 (.70)	3.03 (.86)	.86
내적 귀인 (부정적 사건)	3.31 (.67)	3.59 (.88)	3.43 (.68)	2.84 (.65)	8.69**
안정적 귀인 (부정적 사건)	3.10 (.75)	3.02(1.00)	2.98 (.77)	2.90 (.81)	.81

** $p<.01$

표35 문화배경에 따른 자아상의 차이

자아상	일반(SD)	농촌(SD)	도시출신(SD)	선원가정(SD)	F값
a. 자신감	2.36 (.52)	2.33 (.58)	2.40 (.47)	2.41 (.56)	.81
b. 미래의 자아상	2.75 (.55)	2.62 (.57)	2.83 (.50)	2.81 (.52)	2.94*
c. 성격 (충동, 고립)	2.17 (.56)	2.17 (.53)	2.16 (.53)	2.25 (.59)	.45
d. 도덕적인 자아상	2.39 (.62)	2.30 (.60)	2.49 (.47)	2.20 (.61)	3.08*
e. 사회적 자아상	2.51 (.60)	2.46 (.65)	2.65 (.57)	2.48 (.58)	2.88*
f. 의욕, 동기형성	2.89 (.57)	2.98 (.45)	2.92 (.47)	2.97 (.54)	.66

* $p<.05$

아. 자아상 :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 지

역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의 자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원 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족의 기대나 신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도시지방 출신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다.

요약 및 제언

각 심리 영역별 성별, 연령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장래, 학업, 외모, 부모님의 간섭, 소극적 성격, 친구관계, 용돈 문제는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학교, 가족관계, 장래, 부모님의 간섭 기대, 성격, 용돈때문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있다고 지각하고 있는데, 이는 실지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서 인지 (예:부모님의 간섭이나 기대), 본인들의 바램의 수준이 여학생들보다 높아서인지 (예:장래, 적성 문제), 혹은 남학생들의 스트레스 대한 내성이 약해서인지는 더욱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연령별 차이를 보면, 학업이라는 공통된 문제외에 고등학생들은 장래문제로, 중학생들은 가족, 그리고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시도하거나,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건전한 대처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이를 보면, 남학생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여학생들은 수용적 대처, 사회적 지원 요청이나 소극적인 기분전환 방

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중학생들이 회피적인 방법을, 고1,2학년 학생들은 중학생들보다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이용하는 발산적인 방법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대처양식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문제에는 남학생들이 적극적인 방법을, 여학생들은 회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친구관계나 이성문제의 경우 적극적이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을 성격 특질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의 상호작용 개념으로 연구, 논의하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yferth et. al, 1986; Chan, 1994)

부모 양육 태도 지각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부모가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부모로부터 무시와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학생,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부모가 꾸중과 간섭을 많이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와 동거를 하지않는 학생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독립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자아상과 자신의 의욕이나 동기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전반과 고학년 여학생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위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도 남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정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고학년 여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계획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가치관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인간관계, 성실성, 재미 혹은 경험을 가치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특히 여학생들은 성실성과 좋

은 인간관계를, 그리고 중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재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 측면에서는 남학생들이 주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며, 여학생들이 수용, 협동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내적, 그리고 안정적인 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들에게서 또 고학년일 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위의 각 심리변인의 분석에 기초하여, 성별, 연령을 고려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들이 부모님의 간섭이나 기대외에도 가족관계, 소극적 성격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고, 또한 대인관계에서 비교적 공격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자기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특히 여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 계획의 현실성,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우선 자아성장 훈련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여학생들이 가정문제에 대해 회피적인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주장성 훈련과 같은 의사소통 훈련이 요구된다. 또한 중학생들이 학업외에 가족관계, 부모님의 간섭이나 기대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회피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들을 위해 가정내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훈련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문제에는 각 하위문화권에 따라 문화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모든 문화권에 적용하기보다는 대상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각 하위문화권 청소년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집단에게 요구되는 교

육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농촌지역 청소년

농촌지역 남학생들이 전반적으로 학교문제나 가족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고학년 학생들이 도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환경, 용돈 외모 등을 포함한 문화적 결손에 불만을 갖고 있다.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포함하는 학교문제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외지 교사가 많아 학교 수업외에 학생지도가 부족한 지역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전반적으로 특히 중학생들이 부모의 간섭이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부모님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이는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가 도시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문화비교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무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비교적 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자녀간의 문제가 일반 도시 청소년들보다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게는 부모님과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화 기법이나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 지역 청소년들이 도시 청소년들에 비해 성실성을 중요한 가치덕목으로 생각하면서도 특히 고학년 학생들이 미래의 자아상에 대해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며 자신의 미래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촌 현실이 청소년 문제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촌 교육의 외적인 개선과 더불어 이들 청소년들이 자신의 환경을 재평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 도서지방 출신 청소년

도서지방 출신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중학교

만 졸업하고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들은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다른 집단에 비해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미래계획이 현실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성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상을 갖고 있고 특히 여학생들이 긍정적인 일에 내적 귀인을 하고 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정환경, 친구, 이성문제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방 출신 청소년들의 경우 기숙사에 기거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기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의 경우 부모 간섭이나 기대에 의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회적 지원을 받는데에 반해 자취를 하거나 친척집에 기거하는 남학생들은 부모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하숙을 하는 남학생들이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 요구된다.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여학생들이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한 회피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요구된다.

3) 선원가정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선원 가정 청소년들의 문제도 아버지의 장기간의 외유로 인한 양육 문제로 정리될 수 있다. 이들은 학교문제,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고등학생들의 경우 발산

적인 대응을 많이하고 있는데 이는 선원 가정 아버지의 음주행위와 관계를 지어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훈련이 요구된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성실함과 타인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남학생보다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가족의 기대나 신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의 귀인 성향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직업상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남자 고등학생들이 또래들과의 갈등상황을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 가정폭력과 연결지어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선원 가정 남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 가치명료화 훈련을 복합적으로 실시하고 여학생들은 스트레스 대처 훈련을 그리고 전반적으로 귀인 훈련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주어진 여건에 개의치 않는 태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회피, 무시, 발산적 대응과 같이 비교적 부정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가치관 명료화,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요구된다. 한편 그들이 힘이나 권력, 주위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는일 또 그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선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집단활동을 통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하위문화권 집

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양상이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집단에 필요한 일련의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프로그램 battery) 마련하여 대상 집단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bramson, L.Y., & Seligman, M.E.P., Teasdale, J.S.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49-74.
- Acker, M., & O'Leary, S.G. (1988). Effects of consistent and inconsistent feedback on inappropriate child behavior. *Behavior Therapy, 19*, 619-624.
- Allerbeck, K.R., & Hoag, J. (1986). Adolescent's changing values in a changing society. In K.Eyferth, & R.K. Silbereisen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Heidelberg: Springer.
- Argyle, M. (1986). Social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ce. In K.Eyferth, & R.K. Silbereisen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Heidelberg: Springer.
- Arnold, D.S., O'Leary, S.G., Wolff, L.S., & Acker, M. (1993). The parenting scale: A measure of dysfunctional parenting in discipline situ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37-144.
- Beck, A., Steer, R., Epstein, N., & Brown, G. (1990). Beck self-concept test.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2*(2), 191-197.
- Chan, D.W. (1994). The chines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Assessing coping in secondary

-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in Hong Kong.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08-116.
- Dittman-Kohli, F. (1986). Problem identification and definition as important aspects of adolescent' coping with normative life-task. In K.Eyferth, & R.K. Silbereisen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Heidelberg: Springer.
- Dreher, E., & Dreher, M. (1985). Wahrnehmung und bewältigung von Entwicklungsaufgaben im Jugendalter. In R.Oerter (Ed.), *Lebensbewältigung im Jugendalter*. Weinheim: VCH.
- Eyferth, K., & Silbereisen, R.K. (1986).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In K.Eyferth, & R.K. Silbereisen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Heidelberg: Springer.
- Endler, N.S., & Parker, J.D.A. (1994). Assessment of multidimensional coping: Task, emotion, and avoidance strategies. *Psychological Assessment*, 6(2), 50-60.
- Feiring, C., & Levis, N. (1991). The transition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Sex differences in the social network and perceived self-competence. *Sex Roles*, 24, 489-509.
- Folkman, S., & Lazarus, R.S. (1988). *Manual for the Ways of Coping Questionnaire*.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Gavazzi, S.M. (1993). The relation between family differentiation levels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and the severity of presenting problems. *Family Relation*, 42, 463-468.
- Hoare, C.H. (1991). Psychological identity development and cultural othe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 45-53.
- Inderbitzen, H.M., & Foster, S. (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4, 451-459.
- Kahn, R.L. & Antonucci T.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P. Baltes & O.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Kandel, D.B. (1986). Processes of peer influence in adolescence. In K.Eyferth, & R.K. Silbereisen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Heidelberg: Springer.
- Levitt, M.J. (1993).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tructure and functio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811-818.
- Lopez, F.G. (1991). Patterns of family conflict and their relation to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 257-260.
- Offer, (1983). Das Selbstbild normaler Jugendlicher. In E. Olbrich & E. Tadt (Eds.). *Problem des Jugendalters*. Heidelberg: Springer.
- Parker, J.G., & Asher, S.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G.R., & Stoutham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Petterson, S.,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Y., Metalsky, G. & Seligman, M.E.P. (1982).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and demension of self-concept.

-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3-32.
- Pfiffner, L.J., O'Leary, S.G., Rosen, L.A., & Sanderson, W.C., Jr. (1985).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continuous and intermittent response cost and reprimands in the classroom.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4, 348-352.
- Robein, A.L., Koepke, T. & Moye,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2, 451-459.
- Seiffge-Krenke, I. (1989). Bewältigung alltäglicher Problemsituationen: Ein Coping-fragebogen für Jugendliche. *Zeitschrift für Differentielle und Diagnostische Psychologie*, 10, 199-220.
- Seiffge-Krenke, I. (1990). Developmental processes in self-concept and coping behavior. In H. Barma & J. Sandy (Eds.), *Coping and self in adolescence*. Berlin: Springer.
- Seiffge-Krenke, I., Olbrich, F., & Peters, M. (1984). *Formen der auseinandersetzung mit bedeutsamen Ereignissen und Perioden des Übergangs im Jugendalter*. Bericht über das von der DFG geförderte Forschungsprojekt, Giessen.
- Silbereisen, R.K., Noack, P., & Eyferth, K. (1986). Place for development: Adolescents, leisure settings, and developmental tasks. In K. Eyferth, & R.K. Silbereisen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Heidelberg: Springer.
- Trommsdorff, G. (1983). Future orientation and soci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8, 381-406.
- Trommsdorff, G. (1983). Future time orientation and its relevance for development as action. In K. Eyferth, & R.K. Silbereisen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Heidelberg: Springer.
- Trommsdorff, G. (1989). Sozialisation und Werthaltungen im Kulturvergleich. In G. Trommsdorff (Ed.), *Sozialisation und Werthaltungen im Kulturvergleich*. Stuttgart: Enke.
- Ullrich, R., & Ullrich de Muynck, R. (1976). *Einübung von Selbstvertrauen und sozialer Kompetenz*. München: Pfeiffer.

Cultural relevance of the adolescent problems and intervention programs : A case study in the Mokpo area

Hye-On Kim

Mokpo National University

An empirical crosscultural approach to the adolescent problem was made in the Mokpo area where urban, rural, and island culture coexist. Questionnaires containing eight psychological variables - stress, coping style,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future orientation, value orientation, social skill, attribution style, and self image - were administered to 832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Comparison groups were formed according to gender and age. To reflect the regional specificity in the Mokpo area, five further 'subcultural' groups were compared: students in the urban area, students in rural areas, students from islands, students from fisher families, and adolescents on probation. Age difference was found in seven variables, and Gender and 'subcultural' difference in all eight variable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ultural relevance of adolescent problems. Finally, several types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each subcultural group were suggested.